

■ 주요 뉴스: 미국 주요 기업의 실적, 향후 경기 관련 상이한 신호 발신

- UN, 금년 글로벌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 인플레이션과 통화긴축 등이 위험 요인
- ECB 주요 인사, 인플레이션 고려 시 ECB는 3월 이후에도 금리인상 가능
- 독일 1월 Ifo 경기업황지수, 전월비 상승. 경기전망 개선과 물가 우려 완화 등에 기인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주요 기업의 실적과 연준의 통화긴축 완화 기대가 영향

주가 하락[-0.02%], 달러화 약세[-0.3%], 금리 하락[-1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일부 기업의 부진한 실적 등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
유로 Stoxx600지수는 양호한 경제지표 불구 에너지 관련주 약세 등으로 0.3%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전망 등으로 매도 증가
유로화와 엔화가는 각각 0.3%, 0.5%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이 반영
독일은 다음 주 ECB 통화정책회의 관련 경계감 등으로 보합 마감

※ 원/달러 1M NDF환율(1232.1원, +0.4원) 0.1% 상승, 한국 CDS 보합

		1/25일	1/24일	전일대비			1/25일	1/24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016.2	4,017.0	-0.02%	국채 금리 10y	미국	3.44%	3.45%	-1bp
	유럽	452.07	453.38	-0.29%		독일	2.16%	2.16%	0bp
	중국	휴장	휴장	-		영국	3.24%	3.28%	-3bp
	일본	27,395	27,299	0.35%		CDS 5y	한국	40bp	40bp
	한국	2,428.6	휴장	1.39%	위험 지표	중국	51bp	50bp	1bp
	달러지수	101.63	101.92	-0.28%		EMBI+	-	368	-
환율	유로화	1.0916	1.0887	0.27%		VIX	19.08	19.20	-0.63%
	엔화	129.59	130.17	0.45%		WTI유	80.15	80.13	0.02%
	위안화	휴장	휴장	-	원자재	구리	426.4	424.9	0.35%
	원화	1,231.7	휴장	0.56%		금	1,946.1	1,937.4	0.45%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주요 기업의 실적, 향후 경기 관련 상이한 신호 발신

- 기업들의 실적발표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시각에도 영향. Microsoft의 '23 회계연도 2/4분기('22년 10~12월) 매출은 528억달러로 전년동기비 2% 증가했지만 이러한 증가율은 '16년 2/4분기 이후 최저 수준. 순이익은 12% 감소한 164.4억달러
-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매출 부진에 따른 소비 둔화 및 경제성장 부진 가능성을 제기. 기업들이 거시경제 영향을 피하기는 어려우며, 금년 1/4분기 기업실적 전망도 밝지 않은 편(RBC의 Rishi Jaluria). 다만 클라우드 사업 매출의 전년동기비 18% 증가 등을 고려한다면 향후 전망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존재
- 한편 AT&T는 '22년 4/4분기 매출이 313.4억달러로 시장 예상치(313.8억달러)를 소폭 하회했으나 주당순이익은 0.61달러로 예상치(0.57달러) 상회. 특히 서비스 가입자수가 2.17억명으로 예상치(2.15억명) 대비 많은 것으로 확인
- AT&T의 손 스탠키 CEO는 경기침체와 지정학적 혼란을 주시하고 있으며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발언. 하지만 금년 무선 서비스 매출이 4% 늘어날 것으로 기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UN, 금년 글로벌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 인플레이션과 통화긴축 등이 위험 요인

- UN은 '세계 경제상황 및 전망(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을 통해 금년 성장률을 1.9%로 예상하여 이전(3.1%)에 비해 낮춰서 제시. 이 외에 미국(1.8%→0.4%), EU(2.4%→0.2%), 중국(5.2%→4.8%)의 성장률 전망도 하향
- 코로나19 감염, 우크라이나 전쟁, 식량 및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 및 통화긴축 등이 단기적 측면에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평가

■ JPMorgan Chase, 미국 주가는 부진한 경기여건 등으로 다시 하락할 가능성

- 마르코 콜라노비치 스트래티지스트는 최근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금리인상과 제한적인 소비 회복력 등으로 경기여건은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지적. 다만 S&P500 지수는 연말에 4,20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1/25일 기준 4016.2)

■ ECB 주요 인사, 인플레이션 고려 시 ECB는 3월 이후에도 금리인상 가능

- 독일 중앙은행 나겔 총재는 ECB가 2/4분기에 금리인상에 나선다고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언급. 아일랜드 중앙은행 맥클로프 총재 역시 높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면 1/4분기 이후에도 금리인상이 가능하다고 발언. 최근 시장에서는 2월과 3월이 지나고 나면 금리인상이 멈출 수 있다는 의견이 확산

■ 독일 1월 Ifo 경기업황지수, 전월비 상승. 경기전망 개선과 물가 우려 완화 등에 기인

- 1월 Ifo 경기업황지수는 90.2를 기록하여 전월(88.6) 대비 오르며 3개월 연속 상승세. 이번 결과는 경기 전망이 당초 우려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와 에너지 가격 하락 등에 따른 물가불안 개선 등이 반영. 향후 독일 경제의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경미한 경기침체(Commerzbank의 Joerg Kraemer)
- 한편 독일 경제부는 경미한 수준의 경기침체가 짧게 나타날 수 있으며, 봄을 지나면서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영국 '22년 12월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 전월비 둔화.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이 배경

- 작년 12월 근원 생산자물가의 연간 및 월간 상승률이 모두 전월 대비 하락(각각 13.0%→12.4%, 0.3%→0.1%). 이는 연료, 부품, 장비 등 대부분의 세부 항목 가격 상승률이 하락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 다만 생산업체들은 여전히 비용 증가 압력에 직면(Hargreaves Lansdown)

■ 일본 정부, 1월 경기 판단을 하향 조정. 수출 부진 등이 반영

- 수출, 수입, 기업 채무상환 부문의 어려움 가중 등을 이유로 경기 여건이 전월에 비해 악화되었다고 평가. 주요국의 공격적 통화긴축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가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
- 한편 에이지 마에다 전 일본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금년 4월 신임 총재가 부임하면 일본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의 강도가 점차 약해질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26 현지시각 기준)

- 미국 '22년 4/4분기 성장률(속보치), 1월 3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의 통화정책, 과잉 긴축에 나서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 - Project Syndicate

(Will the Fed Overdo It? - Raghuram G. Rajan)

- 물가안정 목표 달성을 위해 금리를 어디까지 올리고 또 유지해야 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연준은 최근 물가지표 둔화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연준은 노동시장이 견조한 만큼 과잉긴축의 오류를 범하는 편이 과소긴축보다는 차라리 낫고, 경기가 빠르게 하강하면 금리인하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 그러나 이러한 연준의 시각은 스테그플레이션 또는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질 위험을 간과
- 현재 노동시장에서 실업률은 비선형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 주택가격도 급락 가능성이 잠재. 이제 미국경제가 위험한 국면에 접어든 만큼 연준은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안일한 기대를 버리고 향후 경제지표에 따른 민감한 대응에 나설 필요

■ 미국 기업의 이익률 축소, 소비 둔화 등으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 - Financial Times

(Slimmer profit margins are here for a while)

- 작년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이익률이 축소. 그러나 최근 유럽의 경제침체 가능성은 감소하고 있고 IMF는 금년 하반기 세계경제 성장을 전망 상향 조정 신호를 발신. 최근의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은 기업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그러나 임금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고 러시아 디젤 수출 제재에 따른 에너지 가격 관련 불확실성도 증가. 또한 작년 11월과 12월 소매판매의 둔화를 고려한다면 소비수요는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생활용품 제조업체 P&G의 경우 제품가격을 10% 인상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1.7% 감소. 이를 고려한다면 임의소비재 생산기업의 이익은 더욱 악화될 우려

■ 유로존 경제, 침체는 피하겠지만 통화긴축의 위험은 커질 소지 - 블룸버그

(EURO-AREA INSIGHT: Finally, Some Luck - Revising Up the Outlook)

- 따뜻한 날씨로 유로존 경제는 심각한 수준의 침체를 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플레이션 전망도 개선. 다만 ECB 라가르드 총재와 매파 위원들은 헤드라인 물가보다 유로존 경제의 회복력과 그에 따른 근원 인플레이션 위험을 주목할 것으로 예상
- 시장에서는 ECB가 2월과 3월 각각 0.50%p 금리인상에 나서고 필요 시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 비교적 짧은 ECB의 역사에서 이러한 큰 폭의 금리인상에 따른 가파른 통화긴축은 유로존 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 미국의 실질적인 부채위기, 낮은 세율에 기인 - The New York Times

(The Real Debt Crisis Is Low Taxes)

- 장기간 미국 의회는 재정지출 증가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유지. 1972년부터 '21년까지 정부는 GDP의 17.3%를 세수로 거둔 반면 20.8%를 지출. 그 격차인 31.4조달러를 부채로 보전. 현재 정부의 차입한도는 상한선을 상회
- 다수의 미국 국민은 정부지출이 필요. 그러나 공화당이 향후 지출축소 합의 없이 부채상한 수준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고. 하지만 향후 공공지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금 부과가 효과적 해결책

■ 미국 소기업의 지속적인 고용 확대, 연준의 고물가 통제 노력을 어렵게 할 소지 - WSJ

(Surge in Hiring by Small Business Complicates Fed's Effort to Cool Economy)

■ 미국 '22년 12월 잠정주택 판매 증가, 주택경기 회복 신호일 가능성 - 블룸버그

(Housing Demand Climbs as US Market Starts to Show Signs of Life)

■ 유럽의 러시아산 정유제품 수입금지, 에너지 수급에 더 큰 위험 - 블룸버그

(Europe's Ban on Russia Oil Products Will Be More Disruptiv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